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9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독좌대옹봉(66x69)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5 / 9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연기와 재를 보면서
처음 마음으로	09	사람의 본성과 진리를 구하는 자세
숨어서 피는 꽃	16	장애를 뛰어 넘을 디딤돌을 놓자
법정스님 책 속의 책	19	삼국유사(三國遺事)
따뜻한 이야기	22	위태위태!
내 마음속 풍경	25	처가와 본가, 시집과 친정 사이
아름다운 마무리	28	9월 결연대상자 - 김영철 어르신
옛날의 금잔디	30	찍지 못한 졸업사진
참교육 이야기	34	우리 조상들의 육아 지혜, 단동심훈을 아세요?
사색의 뜰	38	마음이 편안한 것이 행복이요, 선행은 마음을 편하게 한다
시심청심	40	이 마음 어디로
실천하며 삽시다	41	잡곡 - 현미밥 먹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9월 1일 발행 / 통권 247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염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연기와 재를 보면서

글·법 정(法 頂)

오늘 아침, 어제까지 받은 편지들을 부엌에 들어가 죄다 태웠다. 입춘도 지났으니 편지를 담아 두었던 광주리도 텅 비워두고 싶어서였다. 굴뚝에서 편지 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저것은 '말의 연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궁이에서는 또 말의 재가 사그라들고 있었다. 사람의 말이란 결국 이런 연기와 재로 사라지는가 싶으니, 말 한마디, 글 한 줄 쓰는 일이 새삼스레 허무한 짓거리로 느껴졌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람과 그 존엄성에 대한 말이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주장들이 쇠경에 경 읽듯이 한낱 말의 연

기와 재로 사그라들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막상 우리 눈앞에 끔찍한 현실로 드러나자 새삼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을 문케 된 것이다.

한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못된 소장수들이 소를 잡을 때 물을 잔뜩 먹여 죽이는 일이 있었다. 소값을 더 받기 위해 말 못하는 짐승한테 몹쓸 짓을 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생사람을 고문으로 물을 먹여 죽이고 있다. 짐승도 못할 짓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버젓한 경찰 공무원이 공권력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산 형제 복지원인가 하는 데서는 떠돌이도 아닌 멀쩡한 사람들까지 가두어두고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이 또한 어찌 된 일인가. 보사부가 그런 집단의 장에게 국민포장과 국민훈장까지 받도록 추천해주었다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웃기는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런 인물을 텔레비전 인간 드라마에 출연시키는가 하면, 어떤 종교 잡지에서는 표지 인물로 선정하여 '주리고 목마른 이들과 함께 함은 주께서 내게 명령한 사명'이라고 말하게 했더니, 매스컴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가 내세우는 주는 어떤 주인가를 또한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정의의 사회와 선진조국을 지향하는 이 땅에서 '세계는 서울로,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 이라고 우렁차게 외쳐대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끔찍한 일들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엊그제 처음 이러한 일이 아니고 일찍부터 이미 있어왔고 묵인되어왔었다는 엄연한 사실에 우리는 더욱

울분을 억제하기 어렵다.

다만, 그런 사실이 오늘 일반에게 알려졌을 따름이다.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자신에게 몇 번이고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사람인 처지에서 땅을 딛고 하늘을 우러르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럽다.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이렇다 할 죄상도 없이 자기네와 다른 뜻을 지녔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끌려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고 치욕적인 심문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슬픈 사실은 어떻게 똑같은 인간끼리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연민의 정마저 우리 날 때가 있다.

악몽처럼 다시 생각 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들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국가 안보의 이름 아래 인격적인 모멸과 참기 어려운 곤욕을 치렀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의심하고 중요하고 싸우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찾아서 만난 이웃들이다. 이렇게 만난 이웃들이기에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가 뭔지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마음놓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듣기 좋고 번드레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그런 법과 제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사회 질서며 국가 안보이겠는가. 사람의 질서와 인간의 안보가 소홀히 되는 그런 질서와 안보는 한낱 통치의 방편과 수단으로 오용되기 쉽다. 나라와 정권의 안보에 앞서 인간의 안보가 우선되는 사회야말로, 나라와 정권의 안보도 함께 유지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두고 절망하는 의견들이 없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엇그저도 신문에 있는 분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두고 말한 바 있지만, 현재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재서는 안 될 것이다.

8.15 광복 이후 40여 년 동안 정치와 교육제도와 그리고 국산 영화만은 한결같이 늙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지만, 그 밖의 다른 영역은 날로 향상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자질과 의식이 많이 깨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알래스카 같은 어려운 생활환경 아래서까지 꺾일 줄 모르고 피땀 흘려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볼 때,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암담하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겨레의 막강한 잠재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뒷보다도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일은, 자기 한 몸의 안위도 잊은 채 불의 앞에 항거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 담당자들에게는 심히 귀찮은 존재들로 생각되었지만, 이 겨레의 장래를 두고 생각할 때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비정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의 방향을 돌려서 살펴 볼 수도 있어야 한다. 국민의 평균 소득이 다소 향상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자칫 자만에 빠져 현실 인식에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양식과 사고에 허술함은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삶의 부피에만 헛눈을 파느라고 삶의 질을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그릇이 있다. 그릇이 차면 넘치게 마련이다.

이것은 도리요 우주 질서다. 사람들은 자기 분수인 그 그릇도 모르고 함부로 과욕을 부리다가 그 과욕에 스스로 차여 넘어진다. 이런 이치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일은, 어떤 사회현상을 그 단면만 보고 성급히 속단해서는 안 된다. 전체의 흐름 위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시야를 넓힌다면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으로 내다볼 줄도 알아야 한다.

어떤 위정자들이건 간에 체제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전체의 흐름을 내다볼 줄 모른다면,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땀질만 하다가 마침내는 전체의 흐름 앞에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거짓이나 임시방편에는 더 속지 않을 만큼 많이 성숙해졌다. 제도화된 일부 신문이나 방송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의 현실 인식이 빈약하거나 낙관 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계층뿐이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더욱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정책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책상을 한번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상투적인 속임수에 속을 국민은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에 찬 책임 있는 공직자의 이런 말도 또한 한낱 연기와 재로 사라지고 만 것이 아닌가. 어디 말뿐이겠는가. 우리들 자신도 언젠가는 한줄기 연기와 한줌의 재로 이 땅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가둔 자건 갇힌 자건, 다

스리는 자건 다스림을 받는 자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모두 다 사라져갈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사람 노릇을 해야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는 일이 인간의 길이니겠는가. 너무 비판할 것 없다. 그렇다고 자만도 금물이다. 그저 사람 노릇 잘하면 사람이 된다. 1987

-텃빈 충만 중에서

2015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한국의 머더 테레사 박 청 수 원불교 교무
9월 20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법정 스님 입적 5주기를 맞아 마지막 일요일에는 법정 스님과 함께하신 어른을 모셔서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9월에는 한평생을 종교와 정치, 국경의 경계 없이 지구촌 그늘진 곳곳을 다니며 막힘 없는 봉사로 삶을 불태웠던 ‘한국의 머더 테레사’ 박청수 원불교 교무님을 모십니다. 박청수 교무님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한센병환자촌 성라자로마를 환자 돕기, 북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 지구촌 55개국에 공동 우물 사업, 학교와 병원 건립 등 구호활동을 펼쳐 2010년 노벨평화상 최종 후보 10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 개척한 서울 강남교당을 후배에게 넘기고 은퇴한 뒤 현재는 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직만 맡아 현산중학교 경내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본성과 진리를 구하는 자세

글·덕 운(德 耘)

많은 사람들이 도(道)를 닦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장애를 만납니다. 도를 닦으면서 발생하는 장애 가운데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수면(睡眠)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들은 수면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면이란 것은 사람이 잘 제어하기가 무척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며칠 먹지 않고는 견뎌낼 수 있지만 잠은 하루라도 자지 못하면 그 고통은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적당한 수면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면을 너무 취하면 정신이 흐릿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유교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낮에는 열심히 선(善)한 법(法)을 닦아 익히고, 초저녁과 새벽에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요, 밤중에는 경을 읽은 다음에 비로소 쉴 것이니라. 잠자는 인연 때문에 일생을 아무 소득 없이 헛되이 보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항상 무상(無常)의 불길이 모든 세상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빨리 자기를 구제할 것이니, 부디 잠만 자지 말라. 모든 번뇌의 도둑이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는 것이 원수보다 더하기를 어떻게 잠자기만을 일삼아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을까 보나? 번뇌의 독사가 너희 마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마침 검은 구렁이가 너희 방에서 잠

자고 있는 것과 같나니, 마땅히 계(戒)의 갈퀴로써 빨리 물리쳐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구렁이가 나간 뒤에라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니, 구렁이를 그냥 두고서 잠을 잔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나라.' <유교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모아 놓은 유훈 같은 것입니다.

잠이란 부족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자면 피로를 풀어주지만, 너무 많이 자면 마음이 풀어지고 나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를 자기를 권하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6시간 이상 자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잡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선을 하므로 세속인들처럼 정신적, 육체적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6시간

이상 자면 마음이 풀어지고 게을러질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정신이 깨어있어야 하므로 수면을 많이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경문>에서 야운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세월 속에 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수마(睡魔)보다 더한 것은 없다. 열두 시각 어느 때나 또렷하게 화두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서 어둡지 않게 하고,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디에서나 항상 끊임없이 빛을 돌려 스스로를 살펴보라.”

선방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수좌(首座)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방 수좌 스님들이 좌복 위에 앉아서 수행할 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졸음입니다. 처음에 선방에 들어간 초심자들은 망상과 몸의 고통 때문에 잠이 잘 오질 않지만, 몸이 어느 정도 편해지면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망상은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또 알아차릴 수 있지만 혼침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침은 수좌 스님들에게 무서운 미약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3,7일 용맹정진을 들어가면 잠을 이기지 못해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방바닥에 이마를 ‘뺨’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서류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느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았으면서도 자신이 존 줄도 모르고 경책하는 인례 스님에게 졸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시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졸음과 싸워 이기려면 화두를 열심히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두에 어느 정도 힘이 붙어야 망상과 혼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방에서 오래 정진하면 망상은 차츰 쉬어지지만, 망상이 없어지고 나면 혼침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망상보다는 혼침이 더욱 이겨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번뇌가 없는 고요

속의 졸음, 이 졸음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깜박 졸은 듯한데 한두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 이 졸음은 그렇게 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졸음에 한 번 맛을 붙이면 압혹의 귀신 굴속에 빠져 영영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졸음을 깊이 즐기다 보면 개구리나 뱀이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무기공(無記空)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기공은 수행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흐리멍덩한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몸조차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선하는 사람은 또렷도렷함을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두 시각 어느 때나 화두에 정신을 집중시켜 또렷도렷하게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한결같이 화두 삼매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망상을 화두에 대한 의심으로 회광반조(廻光返照)하여 돌

이켜야 합니다.

또 공부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내일 미루다 보면 세월은 어느덧 흘러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인생이 내일 내일 하면서 미룰 정도로 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은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길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것 같으면 만겁이 지나도록 한이 될 것이다. 무상(無常)이 찰나 속에 있으니 날마다 놀랍고 두려운 일뿐이요, 사람의 목숨은 잠깐 사이인지라 한때라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라. 만일 조사관(祖師關)을 뚫지 못한다면 어떻게 편안히 잠만 잘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절한 용맹심으로 정진한 아나올(阿那律)존자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수없이 많지만, 그중 뛰어난 열 분을 뽑아 우리는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천안제일인 아나올 존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나올 존자는 부처님의 숙부인 곡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격이 착하고 활달하였으며, 매우 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 기예, 그림 그리기 등의 재주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총명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런 아나올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한 번 자면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잠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다음에도 항상 부처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한번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던 도중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올을 불러 말씀 하셨습니다.

“애답고 애답도다. 아나올아. 너를 깨우기 힘들어 반합조개와도 같구나. 한번 잠들면 천 년을 깨어나지 못하

는 반합이 되어서야 어찌 수행(修行)하는 사문이라 하겠느냐?”

조용하면서도 호된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나올 존자는 용맹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생사의 고뇌를 벗어나고자 출가한 내가 깊은 잠으로 인해 남들보다 수행에 뒤떨어질 수는 없다. 도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자지 않으리라.’

이처럼 용맹심을 낸 아나올은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양쪽 눈에 버팀대를 하고, 총암절벽 꼭대기에 가서 합장하고 발뒤꿈치를 든 채 정진(계족정진)했습니다.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버팀대를 하였기 때문에 눈은 하루도 못 가 뻗뻗해졌고, 차츰 지나자 눈물이 나다가 진물이 나면서 결국 피고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적절히 잠을 자면서 정진하라.”고 타이르셨으나 아나올 존자는 계속 정진했습니다.

다시 부처님은 의성(醫聖) 기바를 보내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잠깐 주무시면 약을 발라 눈을 낫

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도 닦는 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진하기 7일이 되자, 아나올 존자는 눈이 물러 빠져서 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나올 존자는 낙견조명금강삼매(樂見照明金剛三昧)를 깨달아 천안통을 얻었고,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 위의 구슬을 보듯이 한 천안제일의 존자가 된 것입니다.

도(道)란 것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올 존자처럼 용맹스럽게 정진한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진한다고 앉아서 꾸벅 꾸벅 졸거나 하고 망상만 일삼는다면 어느 세월에 도를 기약하겠습니까?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외지물(身外之物)인 재물과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잡다한 일들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수행(修行)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삶의 몸통 같은 것들은 두고 그렇지 않은 일들과 생각들을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중심이 잡히고 진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들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 무상한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순간순간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하루를 진실 되게 살 때 기쁨이 싹트고 삶의 환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적경 가섭품(寶積經迦葉品)에 있는 사람의 본성과 진리를 구하는 수행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법문(法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본성은 허공이 어디에 있던 평등하듯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타고난 본성은 모든 존재가 마침내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 본성은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는 차별에서 아주 떠나 있으므로 한적하여 열반의 길로 향해 있다. 그 본성은 어떠한 번뇌로도 더럽힐 수 없으므로 무구하다. 그 본성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집착, 자기 것이라는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본성은 가장 뛰어난 진리이므로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고, 참된 것이다. 그 본성은 본질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 본성은 존재의 여실성으로서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것이다. 그 본성은 찾아보아도 자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아(無我)이다. 그 본성은 절대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진리(眞理)를 구할 것이요 밖으로 구

하여서는 안 된다. 누가 내게 성내더라도 마주 성내지 않고, 두들겨 맞더라도 마주하여 싸우지 않고, 비난을 받더라도 비웃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가 성냄을 받고 누가 두들겨 맞으며 누가 비난을 받고 누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인가.’ 하고 되살핀다. 수행인은 이처럼 마음을 거두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보적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의 본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수행하는 삶을 살 때,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환희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경이롭고 환희로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불기 2559년 7월 초하루
(2015년 8월 14일) 법문

의류 리사이클링 무료 강좌 참가자 모집

가정에서 입지 않는 폐의류를 재활용하여 필요한 생필품으로 재순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리사이클링 무료 강좌를 9월부터 매주 금요일 개설합니다.

- 강사 : 김영숙(의류 리폼 봉사자)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3시간 정도)
-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
- 인원 : 최대 5명의 소모임으로 2개월 과정(8차 진행 예정)
- 내용 : 참가자가 안 입는 옷(청바지, 남방 등)을 가져와 2개월동안 재능기부강사에게 손바느질, 미싱을 활용한 리폼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여 각자 가정에서 재순환 운동을 실천하여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문의 : 중앙모임 사무국(02-741-4696)

* 리사이클링(recycling) : 환경 오염의 방지나 자원 절약을 위하여 필요 없는 물건이나 폐품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

장애를 뛰어 넘을 디딤돌을 놓자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시각장애인이 더 불편할 거야”
 “지체장애인이 더 불편하지”
 “아니야 지체장애인은 볼 수는 있잖아.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으니 더욱 불편하겠지”
 “무슨 소리, 시각장애인은 볼 수는 없어도 가고 싶은 곳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않지. 시각장애인도 안내자가 없으면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는 없지”
 “장애인 중에 청각장애인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겠네. 볼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으니 말이야”
 자원활동자들끼리 만났을 때 심심치 않게 장애인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이다.

“남의 염병이 내 고삐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신의 장애가 가장 크게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이야 장애영역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해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어떤 장애는 더 불편하고 어떤 장애는 덜 불편하다는 식으로 장애인을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청각신경이 발달해서 음악공부와 어학 공부가 좋고, 청각장애인은 볼 수 있는 사람이니 미술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중에는 청각장애인 화가 운보 김기창 화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서양의 레이 찰스가 천재적인 시각장애인 음악가였고, 운보 김기창 화백이 화가로 크게 성공한 청각장애인이었다 해서 장애 특성 때문에 대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대 예술가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장애인으로 감수해야 할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은 물론이고 주변의 협조와 관심이 없었더라면 예술가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느 청각장애아동의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느 날 청각장애 자녀로부터 “바람 소리가 뭐야?”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람 소리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바람 소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어머니는 청각장애 아들을 데리고 낙엽이 쌓여있는 공원으로 가서 아들과 함께 낙엽을 밟고,

손으로 비비며 낙엽이 부서질 때의 느낌을 감지하도록 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바람 소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지만 ‘바람 소리’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청각장애 아들이 완전하게 바람 소리를 인지할 수 없다 해도 청각장애 아동을 교육하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어찌 청각장애아동의 부모님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는가. 모든 장애아동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도에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 장애인이 되기 전에 들었던 소리와 보았던 사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와 ‘색’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태 장애인으로 태어난 선천성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라면 ‘소리’와 ‘색’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청각장애인은 구화와 수화로 또는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물과 동작에 대한 표현일

뿐 그 자체가 소리가 될 수는 없다. 시각장애인을 '손끝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시각장애인이 사물을 인지하기 위해 손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물건은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게 할 수 있지만 먼 곳에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색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원활동자들이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면서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옷을 고를 때의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황색이고 이것은 흰색입니다. 이것은 노란색이고, 저것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예쁘네요." 그날 이후 함께했던 시각장애인 남자는 세상에서 빨간색이 제일 예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옷을 고를 때도, 신발을 고를 때도, 심지어 속 옷까지도 빨간색을 고집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장애인 각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사법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키 높이만큼의 법전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많은 책 중에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책은 전무하다. 그래서 누군가 점역을 해서 점자로 만들거나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도 탄생이 되었다.

부름의전화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중에는 스스로 가정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요리까지 척척 해낸다.

프라이팬의 온도가 몇 도인지 음식이 몇 도에서 타게 되는지 감지하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프라이팬이 고온으로 오를 때마다 각각 다른 소리가 난다면 시각장애인도 손쉽게 요리를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프라이팬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장애를 뛰어 넘을 디딤돌을 놓아야 하지 않을까?



삼국유사<三國遺事>

일연 지음

오후 한때 그 휴식의 공간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펼쳐 들고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환상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이 더러 있다. 오늘은 백월산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행자의 두 모습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어갔다. 전에도 몇 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읽을 때마다 그 감흥은 새롭다. 고전(古典)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다.

"백월산의 두 성인 성도기(成道記)에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저자인 일연(一然) 스님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신라 수사군의 북쪽에 있는 백월산 무등곡(無等谷)에 들어갔다. 달달박박은 북쪽 고개의 사자

바위를 차지하여 거기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그의 거처를 판방(板房)이라 했으며, 그의 친구인 노힐부득은 남쪽 고개의 돌무더기 아래 시냇가에 승방을 짓고 살았으므로 뇌방(磊房)이라 했다. 그들은 각기 북쪽과 남쪽 다른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을 열심히 섬겼고, 박박은 아미타불을 예경하면서 정토왕생을 염원했다. 이렇게 지내기 3년째 되던 어느 봄날 어둑어둑 날이 저무는데, 나이 스물쯤 되어 보이는 자태가 씩 아름다운 한 남자가 북암(北庵)에 찾아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바쳤다고 <유사>에는 신고 있다.

날 저문 산중에서 갈 길 아득하고
길 잃고 인가 머니 어찌하리오
오늘 밤 이곳에서 자려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화내지 마세요.

박박은 한마디로 여인을 거절한다.
“수도하는 곳은 청정해야 하니 그
대가 가까이 올 곳이 아니요, 이곳에
서 지체하지 말고 어서 떠나시오.”

그는 인정사정없이 문을 팡 닫고
들어가버린다.

복암에서 거절을 당한 낭자는 남
안으로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사정한다. 부득은 갑작스런 여인의
출현에 놀라면서 말했다.

“그대는 이 밤에 어디서 오는 길이
오?”

여인은 시 한 수를 지어 바친다.

첩첩 산중에 날은 저문데
가도가도 인가는 보이지 않소
송죽의 그늘은 한층 그윽하고
시냇물 소리는 더욱 차갑소
길을 잃고 찾아왔다 마시오
바른 법 일러주러 왔으니

부디 이내 청을 들어주시고
길손이 누구지는 묻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부득은 크게 놀라면
서 말했다.

“이곳은 여인과 함께 밤을 새울 곳
이 아니오만, 깊은 산골짜기에 밤이
어두웠으니 문전박대할 수가 없구려.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도 보살행의
하나이니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오.”

밤이 깊도록 부득은 자지 않고 정
신을 가다듬으면서 염불하기를 쉬지
않았다. 새벽이 될 무렵 낭자는 신음
소리를 내면서 부득을 불렀다.

“내게 갑자기 산기가 있으니 죄송
하지만 스님께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부득은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가
없이 여겨 촛불을 들고 시키는 대로
거들어 주었다. 여인은 해산을 마치자
이번에는 물을 데워 목욕시켜 주기를
청했다. 부득은 민망스러움과 두려움
이 엇갈렸지만, 산모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겨 목욕할 통을 가져다가 물
을 데워서 목욕까지 시켜주었다.

이때 문득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진하게 풍기더니 그 물이 금물로 변
했다. 부득이 크게 놀라는 것을 보
고 여인은 말했다.

“스님께서도 이 물에 목욕하십시오.”

부득은 마지못해 그 말에 따랐다.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상쾌해지고 살
결이 금빛으로 변했다. 목욕통 곁에
전에 없던 연화대(蓮花臺)가 있었는데
여인은 부득에게 거기 앉기를 권했다.

“나는 관세음보살인데 이곳에 와
서 스님의 뜻이 가륜한 것을 보고 대
보리(大菩提)를 이루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여인은 홀연히 사
라졌다. 날이 밝자 복암의 박박은 지
난 밤 일이 궁금해서 남안으로 부득
을 찾아온다. 연화대에 앉아 미륵불
이 되어 광채를 발하고 있는 부득에
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자신도 제도
해 줄 것을 간청한다. 박박은 부득의
지시로 통 속에 남아 있는 금물로 목
욕을 하니 그의 소원대로 아미타불
이 되어 함께 구름을 타고 가버린 것
으로 이야기는 맺고 있다.

환상의 여행에서 깨어나 이제는 정
리를 해보자, 수행자는 구도형과 봉사
형 두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 달달박박은 서술이 푸른 구도형
이고 노힐부득은 온유한 봉사형이다.
적절한 비교가 될지는 알 수 없지
만, 헤르만 헛세의 ‘나르치스와 골드
문트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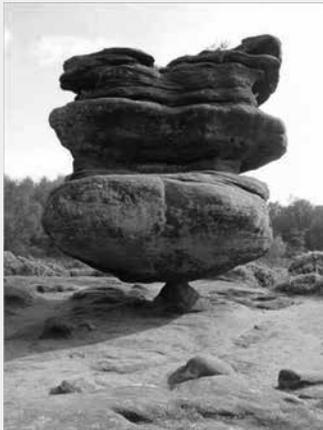
봉사형이 이상적인 수행자로 보이
게 마련이지만, 그런 봉사가 있기가
지는 투철한 자기 질서 안에서 거듭
태어남이 전제되어야 한다. 탐구(智)
와 사랑(悲)이 겹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
이기 쉽고, 사랑이 없는 지혜 또한
메마른 관념에 빠지기 쉽다.

▶ 삼국유사는 국보 제306호로서 고
려 후기 고승 일연(1206~1289)이
75살이던 총렬왕 7년(1281)에 편찬
한 역사서이다. 오늘날 <삼국유사>는
한국고대의 역사·지리·문학·종교·
언어·민속·사상·미술·고고학 등 총
체적인 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위태위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실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자연 속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절대 중심을 잡을 수 없는 바위들이 모진 바람과 풍파 속에도 꿈쩍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노스 요크셔의 브림함 바위입니다. '균형 바위(Balancing rock)'로 잘 알려진 이 바위는 규질암으로 형성돼 있으며 물과 바람으로 하단 부위가 매우 빠르게 침식돼 이 같은 형상을 띠게 됐다고 합니다.



해안 절벽에 세워진 커다란 기둥의 모습입니다. 이 현무암 재질 기둥 역시 잘 알려졌으며 '균형 기둥(Balancing column)'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위기둥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디그비 인근 해안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작은 언덕을 '코피(Kopje)'라고 부르는데 짐바브웨 매토보 언덕에는 화강암으로 이뤄진 바위가 쌓여 있습니다. 이 바위는 모자간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엄마와 아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것 같다고 해서 '모자 암'으로 불리는 이 암석은 유타주 모아브 사막에 있으며 풍화작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도 마하발리푸람에 있으며 '크리슈나 버터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끼리 7마리로 바위를 밀어봤지만 밀리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오늘을 살고 있나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나요?
내일은 다를 거예요.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세요. 설렘에 잠도 못 이룰지 모릅니다.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 '따뜻한 하루'

처가와 본가, 시집과 친정 사이

글 • 이경숙(수필가)

시집 고추를 샀던 친정엄마께서 전화를 하셨다.

“근수가 부족하다.”

차근차근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순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마치 친정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짜증부터 치민다. 민고 그냥 드시지 않고 뭇 땀에 근중(斤重)을 재봤을까? 또 설령 중량이 좀 빠지더라도 그냥 넘어갈 일이지 뭘 따지고 그러시는가. 이런 심산이었을 것이다.

친정엄마는 해마다 시집에서 고춧가루를 사 드신다. 그런데 올해는 통고추를 보내달라고 주문하셨다. 안사돈 일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 고추 15근을 하나하나 행주로 닦아 꼬투리를 다듬으려면 적어도 세 시간은 걸리는데 갈수록 기력이 떨어

어지는 시어머니는 도통 속도를 내지 못하신다.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친정엄마는 이처럼 일구덩이에 파묻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사는 안사돈을 늘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신다. 그런 아량이셨다. 통고추로 주문하면 사돈 마님 일이 조금이라도 줄 거라는 나름의 해량인 셈이다. 그런데 뺑은 샅을 계산하려고 방앗간 저울에 올렸더니 중량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근수가 빠진다는 사실을 알린 친정엄마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의심할 수도 없다. 시아버지는 친정 식구들이 고춧가루를 주문하면 조금이라도 더 얹어 보내시지 딱 정량만 보내거나 부족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착오가 생겼거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시비 자체가 불편하다. 시집과 친정 사이가 아닌가. 그건 친정과 시집 입장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중량이 빠진다는 말은 처음 듣지만, 가끔 고춧가루 색깔이나 입자의 거칠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할 때도 극구 시부모님 편에 선다. 다른 건 몰라도 시부모님이 남을 속일 만큼 비양심적이지도 않거나와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친정식구들이 별 뜻 없이 던지는 한마디 말에도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친정식구들 또한 소비자라는 단순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 할 것도 아니지만, 시집과 연관된 일이다 보니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어쩌다 고춧가루가 우리 집을 거쳐 친정식구들에게 보내질 때는 한 줌도 더 없어주질 않는다. 고춧가루값이야 어차피 시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가고, 고춧가루를 산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내 혈육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은 한없이 인색해진다. 허리 굽은 시어머니가 밭두렁을 기다시피 하며 키운 고추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친정식구들일지라도 폭폭 퍼줄 수가 없는 것이다.

명절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땐 늘 시집이 우선이었다. 시집 일은 꼬박 꼬박 챙기면서도 친정은 뒷전으로 미뤄 두거나, 명절에도 시집엔 목돈을 쓰면서도 친정은 쥐꼬리만큼만 보내거나 아예 한 푼도 보내지 않을 때도 많았다. 물론 친정 부모님도 걸리고 더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는가. 하지만 시집과 친정을 사이에 둔 저울은 늘 시집 쪽으로 기울었다. 그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근간에는 친정 부모님은 내 마음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겠지, 라는 근거 없는 믿음과 ‘친정 부모님 형편이 시부모님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현실적인 이유였다.

공정과 공평은 ‘양쪽이 똑같은 것’이 아니다. 시부모님 생신에 30만 원을 썼으니 친정 부모님 생신에도

똑같은 액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공정이고 공평이다. 친정부모 사는 게 더 어렵다면 친정부모에게 더 써야 하고 시부모님 삶이 더 곤궁하고 고단하다면 시부모님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공정이고 공평이다. 이럴 경우, 친정은 사위가 챙기고 시집은 며느리가 챙기는 게 더 빛날 것이다. 그런데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식이 아니라 기왕 하는 거, 자발적이면 받는 입장이거나 배우자 입장에서나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이 든다. 배우자가 내 부모를 잘 섬기면 나 역시 배우자의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물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친정이든 시집이든 두루 만족할 만큼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사는 일이 어디 내 뜻대로 되는가 말이다.

사랑의 눈길로 보면 보인다. ‘처가와 본가’, ‘친정과 시집’ 사이의 갈피를, 친정 부모님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잘하고, 시부모님이니까 빙빙 주변만 돌거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차례로만 그쳐서야 되겠는가. 본가를 챙기는 일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처가에 등한시하거나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나에게 친정 부모님이 소중한듯 내 남편에게는 시부모님이 소중한 것이다. 나에게 본가 부모님이 소중한듯 내 아내 역시 친정 부모님이 소중한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도 차츰 줄지 않을까 싶다.

사무국 내 차담 공간을 마련했어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이나 봉사자께서 길상사에서 오셔서 차 한잔 하실 적당한 장소가 없으시다면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 공간을 새로 배치하여 차담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차 한잔과 잔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쉬었다 가지거나, 활동 담당자와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맑고 향기롭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아직은 차담 공간이 빈약하지만, 법정 스님의 향기가 느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9월 결연대상자 - 김영철 어르신

충남 온양에서 태어난 김영철(여, 71세) 어르신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섬유회사인 한일합섬에서 근무하기 위해 수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처음 해보는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3살 어린 아내는 1살 많은 남편과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불운이 찾아옵니다. 혼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요. 부부가 자고 있었다라면 둘이 같이 저 먼 세상으로 갔으련만 김영철 어르신은 하루아침에 혼자 남았습니다. 충격도 잠시 뿐이었지요. 두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남편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겨를도 없이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간 음식점에서의

고된 노동이 시작됩니다. 세종문화회관 주변의 한식당 한 곳에서만 20년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주방장 역할을 하며 대구 매운탕, 파전, 낙지 볶음 등을 만들었는데 음식 솜씨가 좋아 단골이 넘쳐났지요. 그 돈을 살뜰히 모아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 손길을 느끼지 못한 탓인지 자신들의 앞길을 헤쳐나갈 정도로 장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두 아들 모두 천안과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별이가 녀석 하지 못해 가끔 연락만 하지 어르신을 찾아뵙지 않은 지 10년이 넘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던 어르신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육신입니다. 이로 인해 만사가 다 귀찮아져 버렸지요. 불면증과 높은 혈압에 더해 3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외래 방문하여 약 처방을 받고 있지만, 완치를 위한 약 복용이 아닌 더 악화되는 걸 막는 치료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이동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가까운 집 근처 시장을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 데 힘이 되는 것은 맑고 향기롭게에서 매주 전달해주는 일주일치 반찬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최소한의 식사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치아도 성한 것이 없어 틀니가 필요합니다. 틀니 만들 기회는 구청에서 지원해준 의료비 5백만 원을 관절염 치료비로 써버렸습니다. 수급자여서 약값 부담은 털 하나 매달 내는 월세 30만 원은 가계의 큰 짐입니다. 정부지원금 40만 원을 받아서 월세를 내고 난 손은 뻗기만 합니다. 보증금 200만 원짜리 집은 칸막이 하나를 벽으로 삼아 원래 하나이던 방을 두 개로 만든 것이지요. 보일

러 스위치가 반대쪽 부부 방에 설치되어 있어 추울 때 온도를 높이지도, 더울 때 온도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내 집은 아니더라도 소중한 내 방이련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어르신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잇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지금은 다리가 아파 다니지 못하지만 4년간 힘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동네 지인의 차로 가는 광화문의 감리교회 일요예배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새문안 교회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으며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구나'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종로 인근에서만 40년을 살았던 김영철 어르신에게 자식과 친척은 멀기만 합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1년치 월세 360만 원을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시지요.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찍지 못한 졸업사진

글 • 윤언덕

작년인가,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미국 작가 앤드류 포터의 소설 집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을 읽고 난 후 며칠 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는 과거의 사건 하나가 계속 생각났다. 어린 시절의 작은 사건이 생각난 것이다. 행여 나의 철없는 행동에 상처받았을 지도 모를, 저세상으로 떠난 친구에게 이 글을 통해 미안한 마음 전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하나쯤 있기 마련인 '지워지지 않는 어떤 순간'을 회상하며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기억에 아파하며 살아간다. 앤드류 포터가 쓴 책을 읽으면서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숨기고 싶은 기억'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학급에는

유달리 성격이 순하고 해맑으며 공부 또한 잘했던 '김상우'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의 집은 학교 옆 재래시장에서 식품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배추, 무, 시금치 등의 채소류와 된장, 고추장, 젓갈 등을 판매하는 평범한 규모의 가게였던 걸로 기억한다. 상우는 학급의 친구 그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친절하고 고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상우 어머니는 가난한 시절인 1973년 그해 어린이날, 시장에서 장사하는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 아이들 먹으라고 단팥빵을 한 상자씩이나 사오기도 하셨다.

그런데 6월 어느 날부터 상우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침 조회시간 때 담임선생님은 상우가 백혈병에 걸려서 당분간 학교에 나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어쩌면 한 해 정도는 휴학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처구니없이 우리는 아무도 상우에게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백혈병이란 병이 무언지도 몰랐거니와 아프면 감기처럼 좀 있다가 곧 낫겠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우네 집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상우를 만날 수 있다는 여유 같은 것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등학교할 때마다 상우네 가게를 바라보았는데 간혹 어떤 날은 상우가 하릴없이 가게에 앉아 있어서 그를 향하여 손으로 인사를 하며 지나갔던 게 고작이었다.

더워서 방학 때는 학교에 갈 일이 없었으니 우연히 상우를 만날 일조차 없었다.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당시 몹시 가난했던 가정의 막내아들이었던 나는 입을 것이 없어서 장롱 속의 죽보까지 꺼내어 달달 외울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기독교 계열의 사립중학교에 다니던 형의 교과서 중에서 '성경이야기'라는 책을 발견하고는

이야기체로 편집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줄줄 설명할 만큼 자주 읽게 되었다. 8월의 어느 토요일 날이었다. 여름방학 중에 열린 성당의 주일학교에서 매일 실시하는 성경시험에서 나는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어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성당 주일학교로 가는 길 이었는데 역시 상우네 가게 앞을 거쳐야 했다. 그날도 상우는 가게에서 어머니 옆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상우는 나를 발견하고는 매우 반가운 표정으로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고, 나는 자랑스럽게 '성당에 가는데 주일학교에서 교리시험 쳐서 1등을 했다'며 떠들었다. 상우는 그런 내가 부러웠는지 한참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이 되었으나 상우는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10월의 어느 날 아침, 선생님은 상우가 며칠 전에 죽었고 화장(火葬)했다는 이야기를 조

회시간에 하셨다. 우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친구의 장례식에는 가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미 화장까지 마쳤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듯했다. 그것은 등하고 때 상우의 집 앞을 지나지 않는 일이었다. 행여 상우 어머니가 우리들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에 모두가 이십전십으로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는 6학년을 마치고 이듬해 2월,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다. 졸업식 전날 소집이 있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은 죽은 상우 이야기를 했다.

상우가 죽은 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우 어머니는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께 졸업앨범에 상우 사진을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셨다. 선생님이 난감해 하자, 상우 어머니는 '상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친구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셨던 것이다. 졸업 앨범을 펴

쳐 보니 과연 상우 사진이 우리와 함께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상우가 세상을 떠난 후인 11월에 우리가 졸업사진을 찍었으니 앨범 제작자에게 상우 사진이 있을 리 만무했다. 상우 어머니가 여럿이 찍은 가족사진에서 오려서 앨범제작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상우 얼굴은 희미하고 배경이 달라서 우리가 사진관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에 비해 금방 표시가 났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는데, 상우 부모님은 그 큰 슬픔 속에서도 나를 비롯한 친구들의 기억에 상우가 영원히 살아있는 방법을 택하셨다.

우리는 이후에도 상우네 집 앞을 다니지 않았고 내 어머니를 비롯한 급우의 어머니들도 마음이 이파서 그 세계에서 장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았다. 상우 어머니가 상채받고 마음 이파할까 봐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졸업한 몇 달 후 시장통에서 상

우네 가족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러한 배려들이 오히려 상우 가족을 더 힘들게 해서 이사를 하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그리고 아픈 상우 앞에서 내가 주일학교 교리시험에서 상 받았다 자랑한 사실 역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조금만 철이 있었다면 백혈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봤을 것이고 상우와 잠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좀 달리 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괴감 때문이다.

일찍이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의 앎(知)이나 판단이 지향해야 할 참된 모습을 지적하는 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 두고 두고 가슴에 담아야 할 만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세월을 반추해보니,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으로 남은 기억,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라고 해도 그 역시 지금의 나 자신을 있게 한 소중한 과거 중의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그때 나에게 남은 기억은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일요일에는 운전하던 차를 돌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의 그 재래시장을 둘러보았는데 옛날 상우네 가게 자리가 보였다. 슬레이트집이었던 상우네 가게는 이미 사라지고 대신 반듯한 삼 층 건물로 변했고 낯선 여인이 여전히 채소와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세월의 언덕을 넘기 전인 어린 시절 상우가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같아 코끝이 짙했다.

▶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 미국의 주목받는 신예 작가 앤드루 포터의 체너적. 2008년 플래너리 오코너 문학상 수상작인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누구에게든 하나쯤 있기 마련인 '지워지지 않는 어떤 순간'을 회상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기억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편안한 언어로 그려냈다.

우리 조상들의 육아 지혜, 단동십훈을 아세요?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자기 자식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자식에게 포도밭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며 떨어뜨린다.”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유대인 하면 탈무드를 떠올릴 만큼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교훈서요, 교과서다. 유대 나라의 어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자란다. 유대인들의 경전으로서 알려져 있는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전통의 학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에 의하여 기록되는 율법, 민

간전승,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자라는 국민들은 얼마나 지혜로울까? 세계의 많은 나라는 자기네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의 교훈서인 탈무드를 들려주며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부모 중에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방식을 따라 가르치기는 부모들이 많다.

유대인들의 교훈서인 탈무드만이 훌륭한 양육법일까?

아이를 길러본 부모들치고 ‘까꿍’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녀를 기르면서 혹은 이웃 아이들을 귀여워서 어를 때 마주 보며 하는 말 ‘까꿍’이 ‘까꿍’이라는 말은 ‘각궁’의 된 소리 발음으로 ‘똘을 깨달’이라는 각

궁(覺躬)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자신을 깨달아 우주의 무궁무진한 이치를 터득(覺寤)하라’는 의미로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을 전달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육아법이다.

까꿍뿐만 아니다. 단동십훈(檀童十訓)에 나오는 한국의 전통 육아법을 보면 ‘도리도리’, ‘곤지곤지’, ‘지암지암(잼잼)’, ‘짜짜꿍(작작궁)’ 등 아이의 인지를 발달시키고 운동 기능과 뇌 신경 발달을 돕는 육아법으로 소근육을 촉진하는 과학적인 놀이다. EBS가 보도했던 일이 있는 이 단동십훈이라는 다큐프라임을 보면 단군 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육아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육아 교육은 보통 출생 후 약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단동십훈의 내용을 살펴보자.

‘도리도리(道理道理) 짜짜꿍’이라는 놀이는 머리를 좌우로 돌리게 하여 목운동을 시키는 놀이다. 엄마들이 아이들 목운동을 시킨다고 알고 있는

이 도리도리는 아이가 자라면서 천지 만물이 무궁한 하늘의 도리로 생겼듯이 너도 이런 도리로 태어났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다.

‘지암지암(持闈持闈)’이라는 놀이는 엄마가 아이의 두 손을 폼다 쥐었다 하도록 하면서 ‘잼잼(지암지암)’ 하며 손 운동을 시키는 손놀림을 가르친다. ‘암(闈)’은 어둡고 혼미스럽다는 뜻이다. ‘지암’은 세상의 혼미한 것을 가려서 파악하라는 의미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알고 살아가라는 부모의 지혜가 담긴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곤지곤지(坤地坤地)’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왼손바닥을 펴게 한 다음 오른손 검지로 왼손바닥을 짚게 하며 엄마는 ‘곤지곤지한다. 십(十)’이라는 글자의 모양새는 음(-)을 양(一)이 관통하는 모습이다. 음양 조화의 상징이다. 이것을 알면 땅의 이치(坤地道)도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섬마섬마(西魔西魔)’는 아기의 다리 힘이 생기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는 아기 걸음마의 귀여움과 신비에 매료된다. 섬마는 ‘처의 마귀’라는 의미다. 서마도(西魔道), 곧 서쪽의 마귀 정신에 물들지 말라는 조상의 경고다. 섬은 ‘처다(立)’의 준말이다. 동도(東道)만으로는 안 된다.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조화로 홀로서기, 자주독립을 하라는 민족의 염원이 담긴 가르침이다.

‘업비업비(業非業非)’는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겁주는 말이다. 무서움을 가르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만질 때 ‘에비’라고 하는 본래의 말이 업비다. 올바른 도에 맞지 않는 생활은 정업(正業)이 아니다. 접화군생(接化群生)이어야 한다. 이런 일에 접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아함아함(亞合亞合)’이라는 놀이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입을 막으며 내는

소리다. 이 동작은 두 손을 가로 세로로 포개면 ‘아(亞)’자 모양이 된다. 이것은 천지 좌우의 형국을 내 가슴 속에 모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시천주(侍天主)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머리 운동을 하는 교육이 끝나면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며 ‘작작궁 작작궁(作作弓 作作弓)’이라는 노래 동작을 가르친다. 천지 좌우와 태극을 맞부딪쳐서 흥을 돋우며 궁(弓:태극)의 이치를 알았으니 이제는 손으로 궁(弓)을 만들어보고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것이다. 왼손과 오른손의 음과 양의 기운(에너지)이 박수로 하나 되어 합궁하면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이 하나(-)인 새로운 에너지가 발현된다는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

놀랍지 않은가? 민초들은 뜻도 모르고 구전되어 오던 노래 동작이 이렇게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구전되어 오던 이 단동십훈은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까마득한 옛날

부터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놀이였더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잠도 덜 깬 아이들을 둘러업고 어린이집으로 뛰어가게 아버지,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원으로 보내고 영어학원이며 미술학원, 피아노학원으로 고액과외를 받게 하려고 하루빨리 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동분서주하는 부모님들.

그래서 찢먹이들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엄마 품이 아닌 남의 손에서 맡겨 키워도 좋을까?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모들에게 고맙다고 할까?

좀 더 자라 학교에 다닐 때쯤 되면 아이들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놀이를 빼앗긴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다. 이겨야 한다. 일 등 하지 않으면 안 돼. 어머

니의 간절한 소망은 특목고나 영재학교에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와 같은 SKY를 나와야 해. 의사나 판검사.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요즈음 부모들이 바라는 자녀 상이다. 학교는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이 목표가 되고, 높고 있으면 불안해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부모들. 놀이가 공부라는 걸 모르고 어린이집이나 학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시는 사람들이 이 땅의 부모들이다.

한 군데 학원에라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지고 더 훌륭하게 자라는 길일까? 욕심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 가고 있다. 선조들은 하늘 같은 아이들에게 지고지선의 소망을 담아 가르쳤는데 왜 오늘날 부모들은 학원만 고집할까? 왜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됐을까? 잃어버린 아이들의 놀이를 찾아 주는 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쯤이면 깨닫게 될까?

마음이 편안한 것이 행복이요, 선행은 마음을 편하게 한다

글 • 김판수(경남모임 회원)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만족을 알면 행복한 삶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과 권력, 지위 명성을 얻으면 큰 만족감으로 알고 행복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방법이 떳떳하지 않으면 얻는 것만으로는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는 덕(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덕은 한마디로 베품을 말한다. 베품이란 비단 재물 뿐만 아니라 베품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의 요체인 사랑, 성실, 봉사 등이다. 이를 실행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다.

이처럼 선을 실행함은 일시적으로는 자기의 회생이지만 크게 보면 자기의 복을 더해주는 행복이 되는 것이다.

원론적인 판단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평범하고도 절실한 물음에 대해 주어진 대답은 '인간답게 살아라'는 것이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처방이며 그 뜻이 모호하기 끝이 없으나 몇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公(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선공후사(先公後私)는 우리의 선비정신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의 선(善)을 우선 가치로 하는 '철학(哲學)'이 있었다.

도덕의 기본은 가정에서 나온다. 부모는 자녀교육에 신념이 서 있어야 한다.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할 일은 양육과 교육의 양기능이다. 지금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는 옛날의 부모 교육에 비해 크게 앞서 있다. 그러나 가정교육에서는 크게 뒤지고

있다. 옛날에는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이며 사람됨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부모들은 나름의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부모들이 유식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변동이 완만했고 윤리규범의 틀이 잡혀 있었기에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공통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회의 모습이 급격히 물질 위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오래다.

'사람의 도리'와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이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지닌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자녀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가며 원만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리고 어린이를 '자유롭게 키운다'는 이유로 방종을 조장하는 부모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장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부모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값진 인생을 찾는 길은 진실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 값이 비싼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이 싫어하지만 자기가 행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것이 선(善)이다.

선이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꽃은 아름다움이 틀림없으나 참으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은 꽃이 피기까지의 그 과정을 알고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깊은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전성으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아는 것은 성숙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성숙한 사회를 가기 위해 이 길을 가야 한다. 왜냐하면, 2만 달러를 넘어 3만, 4만, 5만 달러 시대가 와도 갈등은 있는 것이며 각자가 이를 넘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다.

'불교는 구세주가 아니다. 진리(경전)를 스승으로 삼아 스스로가 깨달음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인간본능의 종교이다.'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朝聞道夕死可矣 朝聞道夕死可矣)'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적실해진다.

이 마음 어디로

글 • 차정화(회원)

저 하늘은 나에게
넓은 마음 품으라 하고
저 바다는 나에게
깊음 속에 진실하라네

스쳐가는 바람소리
고요함은 마음의 평온이요
흔들리는 바람소리
요란함은 마음의 번뇌인가

일심으로
나를 바라보니
아상속에 내가 안 보이네
주와 객이 전도되어
이 마음 어디로 가는가

고요한 마음자리
나를 향한 정심이며
비워낸 마음자리
나를 향한 정견이네

흘러가는 구름
무한한 시간의 공간 속
그 본래의 맑은 본성
어둠 속에서도 빛나리라



잡곡 - 현미밥 먹기

दै의 밥상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 아직도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이 목에 힘주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알의 나락이 백미가 되자면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1분에 1,200회 씩 돌아가는 탈곡기 속에서 몸통이 깨어져야 합니다. 다음에는 방앗간으로 옮겨져 현미기에서 왕겨를 벗기고 정미기에 다시 들어가서는 쌀겨와 쌀의 씨눈까지 다 깎아 나가서 반들반들, 희다 못해 푸르게 속이 비치는 이른바 12분도가 넘는 정백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현미는 쌀겨와 씨눈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색도 누르스름하고 밥을 해놓아도 기름기가 돌

기는커녕 입에 걸끄럽고 오래 씹어야만 겨우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는 쌀의 생명의 핵심인 씨눈과 영양분이 많은, 몸 안에 흡수된 오염 독물질까지 분해하고 배설시키는 생명 영양소가 들어 있는 쌀겨를 그대로 간직한 이른바 '건강식품'이 아닌 '생명식품'입니다.

콩, 팥, 수수, 조 등 잡곡과 보리도 생명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농약을 안 치고도 지을 수 있는(비료질과 농약질을 해가며 지을 만큼 수지가 맞지도 않는),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밥상의 주인을 백미가 아닌 현미로, 그것도 잡곡을 섞은 밥그릇으로 대치하는데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홀로 어르신과 청소년간의 아름다운 만남



소감 / 이지선 학생

매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 더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빨라졌다. 할머니 댁에 가는데 아파트단지가 너무 넓어서 많이 헤매긴 했지만, 그 시간이 다 잊힐 만큼 매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맨 처음에는 안부 여쭙고 건강이 어떠신지 알아보고,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온찜질 안마기 같은 걸 사셔서 작동 방법 익히게 알려드리고 허리 마사지 좀 해드리고 같이 요리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거 같다. 고기반찬은 없었지만 고기반찬 부럽지 않게 김치랑 달걀이랑 부쳐서 해먹

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했다. 밥 다 먹고 빨래 같이 널고 빨래 개고 나니 2시간이 후딱 가버려서 너무 아쉬웠다. 할머니랑 사진 찍는데 할머니가 아주 예쁘셔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 헤어지면서 아주 많이 아쉬웠지만, 얼른 시간이 가서 다음에 또 할머니 뵈면 좋겠다.



소감 / 문인우 학생

김00 할머니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할머니랑 내 학교생활에 대해서 수도도 떨고 목이나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면서 더 정이 쌓인 것 같다. 할머니가 맑고 향기롭게에서 지원하는 반찬을 받으시는데, 동사무소에서 다시 반찬을 전달해주는 공익요원이 요구르트 상자에 김치를 넣고 가면 다 터져버려서 뒷수습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서, 종이에 '앞으로 직접 전달 부탁드립니다.'고 써서 상자에 넣어 놓았다. 할머니랑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면서 더 수도를 떨었는데, 앞으로 할머니한테 맞춤법을 알려드리기로 했다. 할머니는 글은 잘 읽으시는데, 맞춤법에 맞게 글 쓰시는 건 힘들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음 만남 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보라색 펜이

랑 노트를 사서 알려드리려고 한다. 내가 갈 때 즈음, 할머니가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근처 짜장면집에서 맛있게 식사를 함께 했다. 할머니 몸이 여러 군데 안 좋으시지만, 이는 튼튼하셔서 다행이다. 다음번엔 카페에서 빙수를 먹기로 약속했다. 그때까지 꾸준히 연락 드려야겠다는 마음이다.

소감 / 권유나 학생

한 달 만에 보는 거였는데도 마치 일주일 전에 본 것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할머니께서는 이를 뽑아 마스크를 차고 계셨다. 그래서 밥을 못 드시고 죽만 드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매일 가는 복지관이 있는데 그곳도 못 가신다고 했다. 할머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할머니께서 부탁한 노랫말을 보기 편하게 크게 써드렸다. 할머니는 글씨도 예쁘다고 나를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다. 또 할머니께서 나에게 참외도 주셨다. 할머니께서 이 때문에 못 드셔서 안타까웠다. 내가 다시 한 번 드킨 거지만 할머니는 세세하게 내가 말했던 걸 다 기억해주셨다. 그래서 얘기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랐다. 이제 갈 시간이 되자 너무 아쉬웠다. 할머니도 마친가지로 매우 아쉬워하셨다. 할머니는 정말 나를 손녀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 매우 기뻐다. 다음엔 할머니와 밥도 같이 먹고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아름다운 만남' 함께할 청소년 봉사자 모집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 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앞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간의 1:1 결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회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30 문화와 함께하는 푸른 모임 안내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여러 자원 활동 중에 젊은층의 참여와 활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맑고 향기롭게 회원 또는 길상사 신도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 중 20대에서 30대 청년들간의 문화적인 만남을 통하여 차후 봉사활동까지 펼칠 수 있는 '2030 푸른 모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청년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알림' 참조(www.clean94.or.kr)



2015년 숲기행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찾아서
(일정 안내)

10월 3일 : 영주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흔적들

- 부석사 탐방 ⇒ 부석사 주변의 숲 탐사 ⇒ 소수서원과 숲 그리고 선비촌 탐방 ⇒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 풍기의 특산물 탐방(인삼시장)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65세 이하
 - 접수 :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9월 7일)부터 전화, 방문 선착순 40명까지 접수 (02-741-4696)
 - 준비물 : 개인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산 준비)
 - 참가비 조정 : 30,000원(회원, 봉사자, 신도, 일반 참가자 동일하게 적용함)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참가비 입금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 Maekko Hangirumge)
- ※ 숲기행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기 자원봉사자 모집

* Maekko Hangirumge 반찬 나눔 조리 활동

Maekko Hangirumge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

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찬 나눔 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따르릉~ 전화 말벗 봉사활동

전화말벗 자원 활동은 결식이웃 후원 사업 대상자 중 홀로 어르신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여 일상적인 이야기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줄여드리려 혼자가 아니라는 외로움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매주 1회 이상 결연가정에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안부 및 안전(건강) 확인,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소개 및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인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활동을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 진인노인요양원 정기봉사

진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모희원 정기봉사

모희원 자원활동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이동합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나눔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 녹색나눔장터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베품시장이 함께하는 녹색나눔장터가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베품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수익금의 최소 20%는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 주실 분을 찾습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 줄 환경운

동에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장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이 지나 안 쓰는 원단을 기증받습니다.

「Maekko Hangirumge, 중앙모임에서는 생활 속에서의류 재순환(리사이클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지는 원단(면, 실크, 폴리, 자카드, 옷감 등)을 기증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증해주시는 원단은 가방, 매트, 앞치마, 실내화 등 재순환되어 수명을 연장하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는 생활 운동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 1째 수 : 천연 헤나 & 하수오 삼푸
 - 2째 수 : 세라미드 로션
 - 3째 수 : 한방 상백피 에센스
 - 4째 수 : 한방 비누 & 녹차스킨
- 일정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소모임방)
- 강좌는 본모임의 일정 및 업무의 사정이나 참가자가 적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천연 화장품은 길상사내 안내실에서 사용 권장 및 홍보 목적으로 소규모로 판매중입니다.



중앙모임 상근활동가 업무 변동사항 안내

중앙모임의 상근활동가사의 업무 변동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결식이웃 밀반찬 사업을 4년간 맡아온 이예진 간사가 자연사업으로 이관하고, 박준오 신입간사가 맡게 되었으며, 안근호 간사가 퇴사하고 새롭게 신기훈 간사가 입사하여 모금 캠페인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박준오, 신기훈 신입간사는 요즈음 보기 드문 맑고 향기로운 청년으로서 봉사 현장에서 회원님과 계속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 홍정근 - 사무국장(법인 및 중앙모임 총괄)
- 염현경 - 총무팀장(재무, 회원관리)
- 이예진 - 자연사업 간사
(리폼, 천연화장품, 장터, 숲기행 등)
- 박준오 - 세상사업 간사
(결식후원사업, 시설봉사관리 등)
- 신기훈 - 세상사업 간사
(재가복지, 사례관리, 모금 캠페인 등)

사무국 내 차담 공간 마련

중앙모임 사무실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과 봉사자를 위한 차담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잔잔한 이야기를 나시거나, 활동 담당자와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본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본회 회원이 아니신 분은 후원하신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1일(화) /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2030푸른모임 : 18일(셋째 금) 오후 7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목, 금요일(2,3,16,17,24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김치 나눔 : 3월~11월 둘째 목요일(10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7,14,21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 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6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일요일(13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2일)/오후 1시 30분/식달타달
- 아름다운 만남(청소녀와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9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 13일(둘째 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2,9,16,23일(수)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1,8,15,22일)/세계일화실
- 녹색 나눔 장터 : 13,20(둘째, 셋째 일) 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강따라건기/ 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아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 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말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려,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비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추석합동차례

- 일자: 9월 27일(일)
- 장소: 극락전
- 시간: 오전 9시 50분

다라니기도

- 일시: 9월 5일(토) 오후 8시
- 장소: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9월 12일(토) 오후 8시 30분
~ 9월 13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9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9월 6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9월 3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주말선수련회

- 231기: 9월 19일 ~ 9월 20일
- 232기: 10월 17일 ~ 10월 18일

- 233기: 10월 24일 ~ 10월 25일

- 장소: 설법전
- 참가비: 5만원
- 접수: 길상사 홈페이지
(입금 선착순 마감) / 교무실

꽃꽂이반 모집

꽃은 누구에게나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름답게 밝게 해줍니다. 불법도 이와 같음을 상징하여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립니다. 길상사 행사 때 꽃 공양을 올리는 봉사과 꽃꽂이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극락전 좌측 초향회

불화반 모집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설법전 지하 소강당

불교대학 6기 2학기 개강 안내

- 개강 일: 2015년 9월 3일 목요일
- 입학자격: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불자님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주간반 -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야간반 -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수강료: 학기당 20만원
- 문의: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중앙절기도	10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0월 3일	오후 8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10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0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10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길상사 하반기 불교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불교대학에서 하반기 불교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바른 수행과 교육을 통하여 반야를 향해 정진하는 불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가을 경전반 개강

- ▶ 과목 : 법화경
- ▶ 개강일 : 2015년 9월 8일 화요일 (3개월 과정)
-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주간반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 법사스님 : 현견스님
- ▶ 교재 : 법화경(하권) / 무비스님 / 불광출판사
- ▶ 교육비 : 6만 원 (교재비 별도)

불교입문 31기 개강

: 불교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초교육과정

- ▶ 특전 : 수료 후 5계 수지, 불명(佛名) 수계
- ▶ 개강일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3개월과정)
- ▶ 지원자격 : 초발심자,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주·야)
 - 주간반 : 오후 1시 40분 ~ 3시 50분
 - 야간반 : 저녁 7시 30분 ~ 9시 40분
- ▶ 수강료 : 7만 원 (교재비 포함)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길상사 홈페이지 - 배움터)
- 접수계좌 : 신한은행 100-025-929544(길상사 불교대학)
- 문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